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제55차 농정시장작업반(APM) 및 제66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회의 참석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부연구위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김호균 사무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3. 출장일정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11월 13일(일)	인천→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11월 14일(월)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2박 2일
11월 15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3박 3일
11월 16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JWPAT 회의참석	4박 4일
11월17일(목)~18일(금토), 15:30	파리→인천	귀국	4박 6일

4. OECD 회의 의제목록

4.1. 55차 농정시장작업반 회의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Draft agenda of the 55 th session	TAD/CA/APM/WP/A(2011)3
Item 2	Draft summary record of the 54 th session	TAD/CA/APM/WP/M(2011)2
Item 3	Proposal for the 2012 report "Agricultural polic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2 - OECD countries"	TAD/CA/APM/WP(2011)23
Item 4	Measuring the incidence of policies along the food chain: scoping paper	TAD/CA/APM/WP(2011)16/REV1
Item 5	Review of policies in the General Service Support Estimate (GSSE): progress report	TAD/CA/APM/WP/RD(2011)2
Item 6	Agricultural outlook activity update and plans for 2012 report	TAD/CA/APM/WP(2011)24
Item 7	Overview of the on-going risk management project	Oral report
Item 7.a	Roadmap for further work on the thematic reviews on risk management	TAD/CA/APM/WP(2011)25
Item 7.b	Comparative study of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under climate change	
Item 8	Management of risk from animal diseases	Oral report
Item 8.a	Management of risks from epidemic livestock diseases: Overview of key issues and comparison of compensation and cost-sharing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	TAD/CA/APM/WP(2011)26
Item 8.b	Management of risks from epidemic livestock diseases: Review and comparison of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	TAD/CA/APM/WP(2011)27
Item 8.c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Oral Report
Item 10	Structural change in commodity markets	
Item 10.a	Have markets become thinner?	D/CA/APM/WP(2011)20/REV1
Item 10.b	Wheat price volatility scenario analysis	TAD/CA/APM/WP(2011)28
Item 10.c	Aggregate model analysis of exogenous risk and price variability	TAD/CA/APM/WP(2011)29
Item 10.d	Private financial sector investment in agriculture	Oral report
Item 10.d. i)	case studies	TAD/CA/APM/WP(2011)30
Item 10.d. ii)	Related work on investment in agriculture	Oral report
Item 11	Summary record of the OECD Conference on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s, 15-17 June 2011	TAD/CA/APM/WP(2011)31
Item 12	Report of the 8 th meeting of the OECD Network for Farm Level Analysis	TAD/CA/APM/WP/RD(2011)4
Item 13	Update on G20	Oral report
Item 14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global food security: Overview of on-going and planned work	TAD/CA/APM/WP/RD(2011)5
Item 15	Agricultural smallholder risk management: Scoping paper	TAD/CA/APM/WP(2011)32

4.2. 66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Adoption of the agenda of the 66 th Session	TAD/TC/CA/WP/A(2011)2
Item 2	Adoption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65 th Session	TAD/TC/CA/WP/M(2011)1
Item 3	Non-tariff measures	
Item 3.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food-import related regulations – Experiences from some regional trade agreements: Progress report	TAD/TC/CA/WP(2011)3
Item 3.b	Report on the workshop ‘Non Tariff Measures o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Which Road Ahead’	TAD/TC/CA/WP(2011)4
Item 4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A Progress Report on Developing the Database	TAD/TC/CA/WP/RD(2011)1
Item 5	Designation of the members of the bureau of the joint working party for agriculture and trade 2012	

5. OECD 제55차 농업시장작업반(APM) 및 제66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회의회의결과

☐ 핵심요지

(1) 제54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 회원국 농업정책보고서 및 OECD-FAO 2012~2021년 농업전망 보고서 : 작업방향 검토
 - 회원국 농업정책보고서의 개요 및 농업전망보고서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작업 진행 방향에 동의하였음
- 위험관리분야 향후 작업 방향 논의 및 자문보고서 검토
 - ①신흥국 및 개도국의 소규모 농가 위험관리, ②개도국의 위험관리 정책, ③식량안보와 위험관리의 관계 등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사무국의 보고가 이루어졌고,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연구 방향에 대하여 동의함
 - 회원국들은 동물질병분야의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음

- 농산물 시장은 협소해 졌는가 : 수정된 보고서를 공개 결정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일본 등 수입국은 일부 문구의 수정을 재차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회의기간동안 재상정하여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냄
- 민간분야의 농업투자 : 자문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 회원국들은 민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인하여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수용하여 자문보고서는 내부 자료로만 사용하기로 결정함

(2) 제66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 지역무역협정상의 비관세조치 사례 분석 : 경과보고
 - 분석 대상인 NAFTA, EU-Switzerland, EU-Chile의 협정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6개 대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함 제시함
- 수출제한조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과보고
 - WTO통보내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제한조치의 데이터베이스화 진행 상황을 설명함

□ 관찰 및 평가/건의

- 금번회의의 이슈들은 대부분 작업 계획서 검토 및 진행경과 보고의 성격을 띠고 있어 회원국간의 입장차가 나타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 그러나 “농산물 시장은 협소해 졌는가”에 관한 보고서 공개 논의에서와 같이 여전히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국간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입국 공조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무역공동작업반에서 진행 중인 수출제한 관련 연구의 촉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입국간의 상시적인 의견교환 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식품체인상의 정책영향 측정 등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회원국들 간의 입장차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농업개발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시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투자 대상국의 정부 및 소농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결과가 수반되어야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ODA와 연계하여 농업 투자를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ECD와 G20, FAO 등의 공조 및 공동작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적 차원에서도 농업이슈에 관한 대응 방향 공동 검토 및 전문가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수입국공조모임 논의 내용>

- 한국, 일본, 노르웨이, EU, 스위스에서 참석함
- 민간자본의 농업투자 연구(item10.d)는 너무 민간투자의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모두 공감함
- M&E보고서에서(item3) 생산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노르웨이는 집행비용의 절감, 기후변화 대응을 일본은 지속가능한 생산 강화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식품체인에 관한 연구(item4) 결과가 회원국의 정책평가나 PSE로 연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일본은 밝힘
- 향후 ‘농업 위험관리’가 사무국에서 그간 관심을 가져온 PSE, TSE 관련 연구를 대체할 연구주제로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이외에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향후 PWB 관련 연구주제로 제안하는데 동의함
- 이스라엘은 일본을 통해 수입국 공조모임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옴. 공조모임 회의 참여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공조모임 국가들 내에서 농업부분이 다른 산업부분과 별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천대를 받음)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의 회복력(resilience) 강조를 꼽음

○ 다음번 공조모임을 농업위 기간 동안 EU 주최로 화요일에 하기로 함

※ 관찰평가: PWB 2012-13에서 농업위협관리는 주요연구 이슈의 하나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의제별 주요내용

Item3

○ 회원국들은 대체로 2012 M&E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부분적인 보완사항을 사무국에 주문하였다. 내년도 M&E 보고서의 특이 사항은 Part I의 주요 주제로서 농식품부분의 생산성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과 혁신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것과, 5 가지 현안에 대한 설명을 Box로 제시하는 것이다.

- ① 2011년 12월의 WTO 각료회의결과 및 농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 ② EU에서의 CAP개혁안 및 US의 농업법관련 논란
- ③ 정책지표 및 PEM모형을 이용한 장기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 ④ 농가수준네트워크를 이용한 농가지원의 분포에 대한 분석
- ⑤ 신흥국에서의 지원

<회원국 발언요지>

○ 프랑스

- 2012 M&E 보고서에서 Part I 2장에 생산성과 혁신을 주제로 농식품부분의 생산성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과 혁신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 다만, 생산성 증대의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방향보다는 환경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 Part II의 국가별 농정검토에서도 생산성이나 혁신, 지속가능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Box 1) 제시해야 함

○ 노르웨이

- 각료회의 원칙은 요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많으며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 등이 있음.
- Part II의 국가별 농정검토에 공통으로 제시되는 Box1의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 일본

- G20 농업장관회의 정상선언에서 언급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어야 함
- PEM 모형을 활용한 장기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모형을 활용하지 않거나, 모형을 활용하더라도 분석모형(PEM)의 한계를 기술하거나 장기정책 성과평가의 방식을 소개하는 정도로 기술 수준을 낮춰야 함

○ EU

- EU의 공동농업정책과 미국의 Farm Bill과 관련한 정책평가를 같은 Box에 함께 서술하는 것보다는 분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

- 미국의 Farm Bill은 현재 논란이 지속중이어서 이를 Box에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우리나라도 Part I의 생산성 증대와 혁신(2장)에서 지속가능성과 환경 측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프랑스의 제안, 장기정책성과평가에서 PEM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제외하거나 분석모형의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제안, Part II의 국가별 농정검토에 제시되는 각각의 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노르웨이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함.

○ 사무국은 11월 30일까지 회원국의 의견(서면의견 포함)을 수렴하여 내년 5월 APM에서 초안을 제출할 계획임

※ 관찰평가: 수입국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은 OECD 농업위가 국가별 농업보호수준

비교나 생산성제고보다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제 관련 농업의 역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유지 등을 주요이슈로 다루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성제고도 이러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를 희망함. 한국도 이에 적절히 동참해야 할 듯

Item 4

- 기존의 PSE와는 달리, 농업의 전후방산업인 비료산업(전방산업, upstream industry)과 바이오연료산업(후방산업, downstream industry)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수준을 측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계획서(scoping paper)에 대하여 논의함

<회원국 발언요지>

- 영국
 - 전후방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농업부문에만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과까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구서에서 제시한 현재의 분석범위만 해도 결과물을 도출하기 쉽지 않음
- 일본
 - 해당 작업은 실험적 프로젝트(pilot project)인 점을 유념해야 함. 전후방산업으로 선택한 산업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전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책지원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움
- 미국
 - 농업정책이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OECD 에너지위원회와 공조할 수 있는 사안임. 다시 말하면 전후방산업과 농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
 - 바이오연료는 민감한 이슈이며,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이 농업정책인지 에너지정책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바이오 연료 관련 정책의 효율성도 분석할 필요

가 있음.

- 연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가령, 분석대상을 바이오연료 정책이 농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단순화할 필요 있음
- 분석방법으로 IO모형과 CGE 모형은 기술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 캐나다

- 이번 연구에서 도출되는 공급체인에 따라 계측된 새로운 PSE,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GSSE, 기존의 PSE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궁금함

○ 프랑스

- 바이오연료 정책은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원이 농가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농업부문의 정책지원으로 인한 소득의 이전을 계측하는 PSE와는 다른 성격의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계측에 있어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 바이오연료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아르헨티나 등)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사무국(마틴)

-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전을 계측한 것이 PSE이며, 비농업 정책지원 또한 농업부문으로의 소득이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비농업부문에 대한 지지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는 것이 기존의 PSE와 차별화된 목적임
- 분석방법(모형)의 선택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분석범위로 대상국가와 대상정책은 자료의 접근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개념상 이번 연구는 보다 넓은 의미의 PSE를 계측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험적인 연구임

※ 관찰평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GSSE에 대한 연구결과가 PSE, TSE 확대로 연결되거나 OECD가 지나치게 회원국 농업정책, 농업보호 수준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도록 수입국 공조모임 회원국들은 적절히 intervention해야 함.

Item 5

- 해당 작업은 농업정책에서 어떤 정책들이 GSSE에 포함되어야 할지 구분하는 원칙을 점 검하고 개별 정책들을 GSSE 세부범주 내에서 적절히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사무국은 올해 3월 APM에서 논의된 작업계획서(scoping paper)에서 제시된 작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와 향후 일정을 제공하였음
 - GSSE 자료 범주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2011년 11월 중순)
 - 자료구축, GSSE 범주와 부속범주에 대한 제안서 작성(2011년 12월~2012년 1월)
 - GSSE 데이터베이스와 범주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리한 제안서 제출과 기존 GSSE 범주를 토대로 작성한 설문지 초안 제시(2012년 3월 APM)
 - 회원국들에게 수정된 설문지 제공(2012년 3월 말)
 - 회원국들은 응답을 완료한 설문지를 사무국에 제출(2012년 5월 말)
 - GSSE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등의 작업결과 보고(2012년 11월 APM)

* 회원국 별다른 논의 없었음.

Item 6

* 회원국 별다른 논의 없었음.

Item 7 a)

- 해당 보고서는 향후 농업부문 위험관리 주제에 대한 향후 작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작업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함
 -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대상 개별농가단위 분석
 - 신흥경제국에 대한 사례 검토
 - 위험관리와 식량위기에 대한 개념적 보고서
- 사무국은 해당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원국의 자금지원과 사례연구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함

<회원국 발언요지>

○ 네덜란드

- 위험관리와 식량안보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을 지지하며, 인도네시아 사례연구에 재정적 기여를 할 계획임

○ 호주

- 선진국과 개도국은 처한 위험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방안도 다름. 위험의 종류 또한 직접적인 생산위험(기후변화)과 소비를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위험(식량위기)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함
- 개별 개도국들은 직면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도국의 상황을 단일 화해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따라서 인도네시아만을 사례조사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사례조사 대상을 식량순수입국을 포함하여 다수로 늘리는 것이 필요함. 또한, 모든 개도국 농민이 소규모 자작농이 아닐 수 있으며, 개도국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비자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 프랑스

- 사례연구 대상으로 식량순수입국인 브라질과 이집트 등의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야 함
- 보고서에 제시된 식량안보 개념(FTA, 세계은행)은 지엽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 EC

- 기존에 연구한 선진국의 위험관리방안을 신흥국과 개도국에 적용한다는 접근보다는 신흥국과 개도국의 상황에 적합한 위험관리방안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접근방식이 요구됨
-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식량위기(위험)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

○ 영국

- 식량위험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위험관리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식량순수입국이나 순수출국이 사례연구에 포함되어야 함

- 노르웨이

- 식량안보와 관련된 위험에는 불확실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일본

- 개별 농가와 정부 차원에서 각각 식량안보와 관련된 위험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식량안보와 위험관리는 중요한 주제임. 선진국 역시 기후변화와 가격변동성, 그리고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개도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선진국과 개도국에 모두 적용 가능한 위험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G20에서 제시한 신속대응포럼(Rapid Response Forum)과 같은 국제적인 공조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독일

- 식량순수입국이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뉴질랜드

- 식량위기의 수준에 따라 사례조사 대상이 차별되어야 하며, 선진국도 사례조사 대상으로 최소한 한 국가는 포함되어야 함

- 사무국

- 위험에 대한 해결책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은 다르다는 것에 동의함
 - 식량안보를 더 넓은 개념으로 재설정하고, 위험관리와 식량위기에 대한 개념적인 보완을 지속할 것임.
 - 개도국의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소비자의 식량위험을 포괄한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음
 - 식량순수입국과 선진국을 사례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회원국의 재정적 기여가 필요한 사안임

※ 관찰평가: 기상, 자연재해, 질병 등과 관련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규명과 영향평가, 농업인 위험대응 능력 강화, 민관의 적절한 위험관리 책임

분담, 민간위험관리시장 육성 등이 계속 과제임

Item 8 a)

- 동물 질병 위험 관리와 관련한 컨설팅 보고서(Civic Consulting, 독일)인 “전염성 가축 질병 위험 관리: 국가들의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의 검토와 비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회원국의 논의가 이루어짐
- 회원국들은 해당 보고서가 광범위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점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함

<회원국 발언요지>

- 영국
 -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공급체인 상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비용부담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기를 바람
 - 가축질병보험(보상)과 질병회피노력(위험저감행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과 이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사할 필요 있음
- 프랑스
 - 민관의 비용분담, 민간의 위험시장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 규명이 필요함
 - 가축질병과 축산업의 전후방산업인 사료산업과 가공, 유통산업과의 관계(피해, 보상, 비용부담 등)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 있음
- 스페인
 - 사례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기존 연구와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국가들이 선정되었다고 응답함)
- 미국
 - 개별 정책단계(예방, 보상, 비용 배분 시스템, 통제 등)의 국가별 비교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각 정책간의 연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Item 8 b)

- 가축질병과 관련된 위험관리의 정책 이슈를 규명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준비된 두 번째 컨설팅 보고서(Phylum Consulting, 프랑스) “전염성 가축 질병 위험 관리: 국가들의 보상 및 비용 배분 시스템의 주요 이슈 검토 및 비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회원국의 논의가 이루어짐

<회원국 발언요지>

- 영국
 - 가축질병에 대한 정량적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가축질병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에서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별개로 취급해서는 안됨
 - 사례조사 대상국가(호주,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가 대체로 가축질병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조사대상 국가가 달라지면, 보고서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프랑스
 - 보고서에는 가축질병 예방 및 통제 시스템 및 관련 조직, 동물위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Item 9

-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농정검토 작업의 진행상황과 작업계획의 개요를 소개함
- 카자흐스탄의 농정검토 작업
 - 2011년 6월 시작(정책담당자 및 농업관계자 회의, 지역 컨설턴트의 작업지원)
 - 시장개입, 농촌신용,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 정책정보 수집과 회의(2011년 10월 초)

- 사무국의 초안 작성(2012년 1월 후반)
- 카자흐스탄 전문가 초청하여 사무국에서 초안 검토(2012년 2월 초, 파리)
- 카자흐스탄 정책담당자와 사무국의 공동검토(2012년 4월 26일, 아스타나)
- 농업위원회에 보고서 제출(2012년 6월 28일)

○ 인도네시아 농정검토 작업

- 2010년 10월 시작
- 인도네시아 농업부(MoA)의 농정 자료 제공
- 누락된 자료 수집과 회의(2011년 10월 후반)
- 현재, 농정검토보고서의 초안 작성이 진전된 단계임. 그러나 PSE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시장가격지지(MPS) 관련 작업이 더 필요한 상태이지만, MoA는 정책 평가를 위해 PSE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보류하고 있음

Item 10 a)

- 해당 보고서는 국제농식품시장이 협소해 졌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 6월의 APM에서는 분석내용과는 다소 무관하게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협소함을 연계한 결론부분의 서술내용에 일부 회원국(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공표가 연기된 바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국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개정된 보고서가 제출됨.
- 프랑스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무역자유화와 가격변동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시장의 협소함과는 무관하다는 점과 보고서의 여러 부분에서 무역자유화와 가격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협소함을 연계하여 기술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합리적 기대가 충족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만 무역자유화가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일본은 최근의 국제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이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가 가격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기술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무역자유화를 통해 가격변동성이 완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수출제한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들이 충족할 때만
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시장이 협소해지지 않았다는 분석내용과 시장의 협소함과 가격변동성의 연관성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의 결론과는 별도로, 무역자유화가 가격변동성을 해소하는 보편적인 방안이라는 식으로 기술한 마지막 문단(para69) 앞에 각국의 생산성 증대노력과 지역별 재고비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국제적인 협조 또한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 사무국은 각국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해당 문구의 삭제·수정·추가한 개정안을 회의기간동안 재상정하여 설명하였으며, 세부적인 조정을 거쳐 회원국들은 이를 공표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가 요구한 생산성 증대 관련 문안은 마지막 문단의 서두에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재고비축 관련 사항은 보고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 시장의 협소함과 가격변동성을 연계하는 내용이 많이 삭제, 수정되었기 때문에 공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Item 10 b)

- 해당 보고서는 신흥경제국(BRIC)의 소득증대와 국제재고수준의 변화가 국제 밀가격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AGLINK-COSMO 모형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프랑스
 - 농산물 가격수준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을 수 있으며, 모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함
 - 개별적으로 설정한 ‘국제 밀재고 수준’과 ‘개도국의 소득성장’ 시나리오를 함께 적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 있음. (저자는 개별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응답함)
 - 재고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역으로 가격이 재고에 미치는 영향이 존

재하기 때문에 모형에서 재고를 외생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모형에 내생화할 필요가 있음(저자는 AGLINK-COSMO 모형은 재고를 내생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응답함)

- 바이오연료 수급 및 관련정책, 중국의 재고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된다면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음

○ 미국

- 재고 시나리오에서 재고와 소비량 비율을 36%로 가정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질의함(저자는 분석대상 기간의 평균값을 기본 시나리오의 초기값으로 설정했다고 응답함)
- 국제 재고수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내 재고수준 또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

- 기존 보고서들에서도 수차례 기술되었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AGLINK-COSMO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모형의 제한점을 본 보고서에서도 기술되어야함(Box1)
- AGLINK-COSMO 모형은 매년의 균형가격을 정하는 모델로서 변동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함. 실제로는 균형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증가하게 됨

- 회원국은 11월 30일까지 서면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반영한 수정된 보고서를 내년 3월 APM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제출하기로 함

Item 10 c)

- 지난 5월 APM에서는 “AGLINK-COSIMO 모형을 활용한 외생적 위험과 가격 변동성 분석” 보고서가 공표되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따라 확률적 분석과 시나리오 보완을 위주로 한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있음

- 분석모형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제안·요구들이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되

있고 이에 사무국은 일부 제안된 내용은 모형이 가진 한계상 포함되지 못함을 밝힘(많은 국가와 품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고려할 경우 모형이 너무 복잡해지고 결과도출이 어려워짐)

- 생산량과 가격이 상관되어 있으면 편의된 결과가 초래됨
- 시계열모형의 안정성 여부 관련 종속변수인 생산량에 대한 Dicker-Fuller 테스트 적용
- 지역간 생산량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잔차항의 분산-공분산 구조가 복잡해지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추정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과 검증결과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이상 프랑스)
- 잔차항이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가격급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분포는 하방으로 치우쳐진 분포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분포에 대한 가정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뉴질랜드)
- 생산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risk-aversion)가 모형에 반영되어야 함(미국)

Item 10 d) i, ii

- 사무국은 이 자문보고서가 OECD working paper로 나오기를 희망하였음. 호주, 프랑스 등의 회원국에서 보고서가 가진 한계(보고서 내용이 연구사례인 민간투자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만 의존하여 투자대상국(DC)에 대한 효과 등이 과장 또는 편향적으로 제시됨)를 이유로 보고서 발행을 반대함. 이에 사무국은 이 보고서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이용하기로 결정함.
- FAO에서는 민간 및 공적자본 해외농업 투자의 투자대상국에 대한 효과를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함. 투자대상국에 대한 효과를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봄. 일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농가소득, 고용창출)가 있으나 기술이전 효과는 크지 않음. 특히 대규모 농지 취득을 통한 농업개발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적음(농지법이나 거버넌스 체계가 약한 경우 사회적 부정적 영향이 큼). 환경적으로도 농지, 수자원의 과다이용 문제가 만연하여 부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림. 공식적인 연구결과 발표는 12월 22-23일 로마에서 열리는 FAO 전문가 회의에서 있을 예정

임.

- ※ 관찰평가: 외국자본 투자에 의한 저개발국이나 신흥개발국 농업개발은 세계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대상국 소농, 대상국 정부 정책능력 강화) 이를 진행해야 함. 곧 나올 FAO보고서도 참조하도록 함

Item 13

- 다음 번 멕시코에서 열릴 G20에서는 지난번 프랑스에서 강조되었던 생산성제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멕시코 대표 발언), 무역정책 이슈(사무국 참조 발언)도 다뤄질 예정임
- ※ 관찰평가: G20에서 무역정책 이슈가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Item 14

- 특별한 사안 없음

Item 15

- 네덜란드는 소농이 위험을 딛고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품체인이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함
- 독일과 노르웨이는 이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가 개발도상국에서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 프랑스와 EU는 소농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농장규모, 투입자본 규모)에 따라 연구범위, 내용이 달라짐을 지적함

- 사무국은 연구대상이 되는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위험은 안정성, 식량안보와도 연관됨을 강조함

<JWPAT 회의결과>

Item 3 a)

- 해당 작업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SPS 조치에 초점을 두어 관련 규제의 설계와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의 실행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발굴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 이 보고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NAFTA, EU-Switzerland, EU-Chile의 협정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향후 6개 대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경과보고서임.
- 분석대상 협정문의 당사국들인 EU, 스위스, 미국 등이 보고서의 내용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연구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였음
- ※ 관찰평가: 2012년 5월 농업 및 교역 합동작업반회의에서 제출될 계획인 분석대상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가 교역증진이라는 국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치도입의 취지달성이라는 국내적 측면이 모두 균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Item 3 b)

- 해당 보고서는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의 전망을 주제로 2011년 9월 13일(프랑스 파리)에 개최된 워크숍에서의 주요 논의를 소개하고 있음
 - OECD와 ‘the International Food & Agricultural Trade Policy Council (IPC)’가 공동으로 주최함
 - 주요 논의내용은, ①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② 비관세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는 혁신적인 방법, ③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④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에서의 교훈 등임.

-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설명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음. 사무국은 보고서의 일부 문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작업계획은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힘

Itme 4

- 해당 보고서는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수출제한에 관한 연구를 OECD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며, 보완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함
 - 수출제한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 해당 조치의 영속성 여부(일본)
 - 국내수요량과 수출량의 구분(일본, 프랑스)
 - 수출제한의 근거 규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프랑스)
 - 주요국의 국내가격(영국)
 - 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지 발송(미국)
 - 모든 수출제한조치를 수출세로 전환하여 제시하는 방식(EU)
- 사무국은 비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출세로의 전환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비효율적인 작업이며, 국내가격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설명함
- ※ 관찰평가: 수출제한 관련 작업은 관련 자료의 구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출제한과 관련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수집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차적인 분석과 연

구에 서둘러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차기 회의에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추진을 독려할 필요있음